

# SERI 경제 포커스

2009. 10. 20. ( 264 )

## 금융위기로 明暗이 엇갈리는 유럽 強小國 경제

### 목차

FOCUS	1
1. 유럽 強小國 경제의 특징	
2. 금융위기와 유럽 強小國 경제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8
경제일지	19
경제통계	22

작 성: 김득갑 연구전문위원  
(europe.kim@samsung.com)  
02-3780-8034

## 1. 유럽 強少國 경제의 특징

### 금융위기 이전까지 유럽 強小國 경제가 각광

####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까지 유럽의 11개 強小國 경제가 호조

- 強小國(Small but Strong Countries)이란 '인구 규모는 작지만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를 지칭
  - 한편, OECD는 '규모가 작아 정책적으로 국제가격, 금리, 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국제무역에 활발히 참여하는 경제'를 '소규모 개방경제 (Small Open Economy; SMOPEC)'로 명명
  - SMOPEC에는 헝가리, 발틱 3개국 등 동유럽 국가들도 포함
-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2007년 시점) 유럽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11개의 강소국 경제가 존재
  - IMF가 선진경제(Advanced Economies)로 분류한 33개국의 평균에 비해 인구가 적고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은 유럽 국가를 선정한 결과
- 1980년 이래 유럽 강소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큰 변화 없이 지속 성장
  - 아일랜드<sup>1)</sup>는 1994~2007년에 연평균 7.4%의 고도 성장을 통해 유럽 강소국 대열에 합류

#### □ 그동안 유럽 강소국 경제는 벤치마킹 해야 할 성공 모델로 주목받아왔음

- 유럽 강소국은 적은 인구와 자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삶의 질)'를 동시에 실현한 경제 모델로 평가
- 이에 따라 네덜란드,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강소국의 구조개혁과 경제적 성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

<sup>1)</sup>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아일랜드 경제를 '셀틱 타이거(Celtic Tiger)'라고 지칭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경제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럽 강소국이 성공 모델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었음
- 인구 규모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지만, 유럽 강소국 모델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1980년 이래 유럽 강소국의 변화 추이

1980년	1990년	2000년	2007년
1. 룩셈부르크 2. 스위스 3. 스웨덴 4. 노르웨이 5. 아이슬란드 6. 덴마크 7. 네덜란드 8. 벨기에 9. 핀란드 10. 오스트리아 (9,490달러)	1. 스위스 2. 룩셈부르크 3. 스웨덴 4. 핀란드 5. 노르웨이 6. 덴마크 7. 아이슬란드 8. 오스트리아 9. 벨기에 10. 네덜란드 (18,474달러)	1. 룩셈부르크 2. 노르웨이 3. 스위스 4. 아이슬란드 5. 덴마크 6. 스웨덴 7. 아일랜드 8. 네덜란드 9. 오스트리아 10. 핀란드 11. 벨기에 (21,854달러)	1. 룩셈부르크 2. 노르웨이 3. 아이슬란드 4. 아일랜드 5. 스위스 6. 덴마크 7. 스웨덴 8. 네덜란드 9. 핀란드 10. 오스트리아 11. 벨기에 (40,308달러)

주: 1) 순위는 1인당 GDP 기준

2) ( ) 안 수치는 해당 연도 33개 선진경제의 1인당 평균 GDP

자료: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강소국 경제의 대응력을 평가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

- 전후 최악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11개 유럽 강소국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위기 대응력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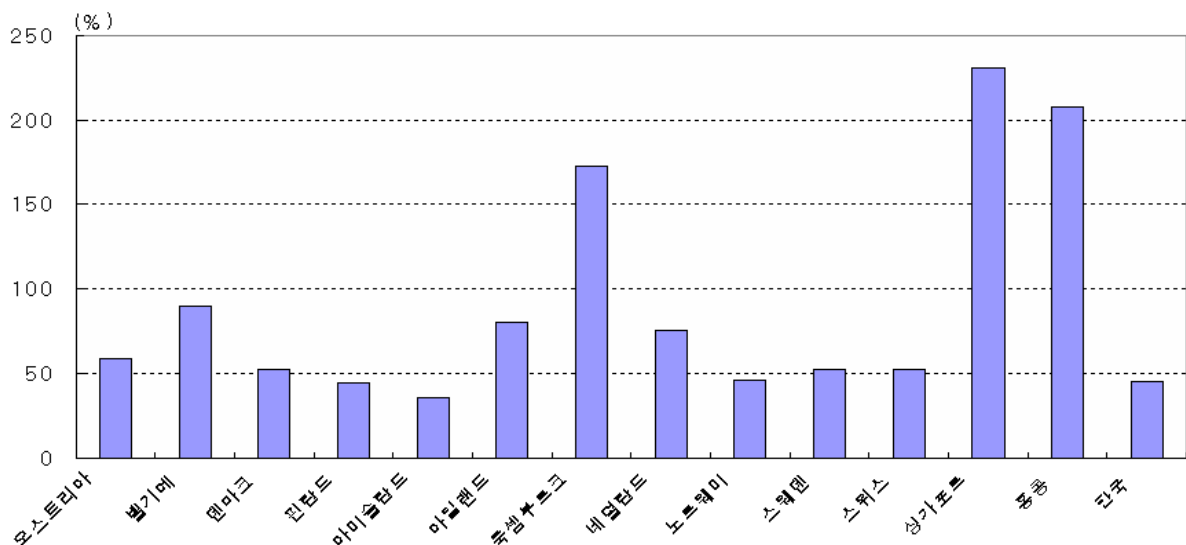
## 유럽 強小國 경제의 특징

### ① 높은 대외 의존도

□ 유럽 강소국은 내수시장이 협소한 관계로 대외 개방경제를 지향

- 유럽 강소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GDP 대비)은 싱가포르, 홍콩보다는 낮지만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서는 높음
- 특히 룩셈부르크(173%), 벨기에(89%), 아일랜드(80%)의 수출 의존도는 GDP 대비 80% 이상
- 다만, 아이슬란드의 대외 수출 의존도는 35%에 불과
- 아이슬란드의 제조업 수출은 GDP 대비 8.6%로, 금융산업의 비중이 큰 스위스(34.0%), 룩셈부르크(29.0%)의 3분의 1 수준
-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 비중이 낮아 환율효과에 의한 수출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

상품 및 서비스 수출 비중(2007년)



자료: World Bank (2009. 6.).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PI)가 높은 비중을 차지

- 룩셈부르크(GDP 대비 43배), 아일랜드(4.7배), 아이슬란드(2.2배), 네덜란드(2.2배), 스위스(1.5배)의 순으로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

- 스위스(90.8%), 룩셈부르크(80.3%), 핀란드(64%)의 경우 외국인의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음
- 반면, 아이슬란드(93.8%)와 오스트리아(81.9%), 네덜란드(75.3%)는 채권투자의 비중이 주식투자보다 훨씬 높음
- 유럽 강소국 간에는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과 대외 의존도에 차이
  -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는 경제규모 대비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으나, 외국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스위스는 자본시장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경제규모 대비 외국자본 의존도가 낮음

###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2007년)

(단위: 십억 달러, %)

투자대상국	금액	GDP 비중	투자 구성	
			주식	채권
오스트리아	406	109	18.1	81.9
벨기에	416	91	34.1	65.9
덴마크	245	79	29.5	70.5
핀란드	332	135	64.0	36.0
아이슬란드	45	221	3.0	93.8
아일랜드	1,223	470	34.5	65.5
룩셈부르크	2,143	4,309	80.3	19.7
네덜란드	1,682	216	24.7	75.3
노르웨이	268	69	45.6	54.4
스웨덴	480	106	38.4	61.6
스위스	663	153	90.8	9.1

자료: IMF (2009. 7.).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

- 외국자본의 유입에 힘입어 시가총액이 급증
  - 2007년 기준 GDP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큰 국가는 룩셈부르크와 스위스로 GDP의 3배 이상
  - 2001~2007년에 GDP 대비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218%p)와 아이슬란드(151%p)

## □ 자본조달은 외국계 은행의 대출에 크게 의존

- 2007년 말 기준 유럽 강소국의 외국계 은행 차입 규모는 GDP 대비 131%에 이를 정도
  - 이는 외국계 은행의 대출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영국(178.3%)보다 낮지만, 독일(35.6%)과 프랑스(59.2%)보다는 월등히 높음을 의미
- 특히 룩셈부르크(GDP 대비 13배), 아일랜드(3배), 아이슬란드(2.3배), 스위스(2.2배)는 외국계 은행의 대출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GDP의 2배 이상
  - 반면, 핀란드(32.8%), 오스트리아(36.5%), 스웨덴(54%), 노르웨이(63.9%), 덴마크(68.8%)는 외국계 은행의 대출자금 의존도가 낮음

## ② 높은 경제성장률

### □ 유럽 강소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글로벌화와 유럽 시장 통합의 경제적 혜택을 최대한 향유
- 1980~2007년에 EU 경제가 2.2% 성장하는 동안 유럽 강소국 경제는 연평균 2.6% 성장
  - 특히 동 기간 중 아일랜드(5.1%)와 룩셈부르크(4.8%)는 신흥 개도국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
  - 아이슬란드도 3.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유럽 강소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약점(심한 경기변동성)을 노출

- 2001~2003년에는 닷컴 버블의 붕괴로 유럽 강소국의 경제성장률이 1.4%로 크게 하락(EU의 경제성장률은 1.7%)

- 아일랜드(5.5% 성장)를 제외한 10개국의 성장률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
- 2004년 이후 금융위기 이전까지 유럽 강소국 경제는 가파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4년간 3.2% 성장(EU의 경제성장률은 2.8%)
- 이 기간 중 아이슬란드(6.3%), 아일랜드(5.5%), 룩셈부르크(5.3%)가 5% 이상의 높은 성장을 구가

### 유럽 강소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국가	연평균 성장률 (1980~2007년)	닷컴 버블 붕괴 (2001~2003년)	회복기 (2004~2007년)
유럽 강소국	오스트리아	2.2	1.0	3.0
	벨기에	2.2	1.1	2.6
	덴마크	2.1	0.5	2.4
	핀란드	2.8	2.0	3.9
	아이슬란드	3.3	2.2	6.3
	아일랜드	5.1	5.5	5.5
	룩셈부르크	4.8	2.7	5.3
	네덜란드	2.4	0.8	2.8
	노르웨이	3.0	1.5	3.0
	스웨덴	2.4	1.8	3.6
	스위스	1.9	0.5	3.1
	11개국 평균	2.6	1.4	3.2
EU 전체		2.2	1.7	2.8

자료: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DB.

### ③ 강한 국가경쟁력

□ 유럽 강소국은 1990년대 들어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

-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주변 강대국과 중국 등 신흥 경제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한정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해외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

- 이 때문에 유럽 강소국은 일련의 유럽 시장 통합 노력에 부응해 시장개방과 규제개혁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
- 유럽 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 프로그램, 경제통화동맹(EMU) 출범, 리스본전략(Lisbon Agenda) 추진 등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둠

□ 이에 따라 유럽 강소국은 대부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에 포진

- 세계경제포럼(WEF)과 IMD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5개국의 국가경쟁력을 매년 10위 이내로 평가
- 한때 국가경쟁력이 10위권에 속했던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및 정부 부문의 재정 악화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훼손<sup>2)</sup>
- 기업환경 부문에서는 아일랜드(7위)와 아이슬란드(14위)가 10위권 내외

#### 유럽 강소국의 국가경쟁력 및 기업환경 순위(2009년)

	국가경쟁력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WEF 기준	IMD 기준	
<b>대상국가 수</b>	133개국	57개국	183개국
스위스	1	4	21
스웨덴	4	6	18
덴마크	5	5	6
핀란드	6	9	16
네덜란드	10	10	30
노르웨이	14	11	10
오스트리아	17	16	28
벨기에	18	22	22
룩셈부르크	21	12	64
아일랜드	25	19	7
아이슬란드	26	-	14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09).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09~2010.;  
IMD (2009).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2009.; World bank (2010). Doing  
Business Report 2010.

<sup>2)</sup> 아이슬란드는 WEF 기준으로 2005~2006년 3위, IMD 기준으로 2007년 7위까지 기록한 바 있음



## 2. 금융위기와 유럽 強小國 경제

-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편승해 성장해온 유럽 강소국 경제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음
  - 개방된 금융시장과 높은 대외 무역의존도로 인해 금융 및 실물 부문의 채널을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강소국에 전이

### 금융부문 :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충격이 미미

- 외국계 은행의 대출에 의존하던 유럽 강소국 경제는 대출 감소로 타격
  - 금융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들은 디레버리지(deleverage)를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섬으로써 대출액이 감소
    - 핀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한 9개 국가가 대출 감소로 고전
  -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대출 감소가 가장 현저했던 반면, 핀란드와 아일랜드는 외국계 은행의 대출이 오히려 소폭 증가
    - 국가 부도위기까지 몰렸던 아이슬란드는 외국계 은행의 대출이 절반 이상 감소

### 외국계 은행의 대출잔액 증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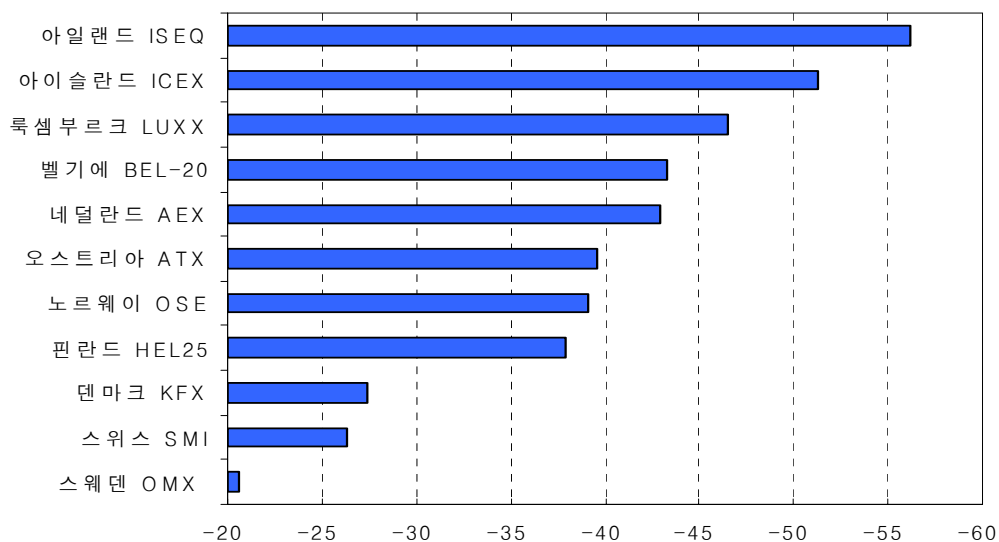
	2007년 12월	2009년 3월	증감률
오스트리아	135.4	117.7	-13.1
벨기에	566.4	371.2	-34.5
덴마크	213.3	195.0	-8.6
핀란드	80.8	87.0	7.7
아이슬란드	46.0	21.1	-54.2
아일랜드	786.7	793.6	0.9
룩셈부르크	647.8	600.1	-7.4
네덜란드	1,005.9	839.3	-16.6
노르웨이	248.1	197.8	-20.3
스웨덴	245.0	217.0	-11.4
스위스	969.2	644.9	-33.5

자료: BIS (2009. 9.) Quarterly Review.

□ 금융위기로 인해 11개국 모두 주가 하락으로 고전했으나, 금융위기의 충격이 심했던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하락 폭이 가장 두드러짐

- 주식시장 안정성에서 스웨덴이 가장 양호하고, 스위스와 덴마크도 비교적 증시 상황이 안정적이었음
- 국내 금융기관들이 증시 안정 세력의 역할
- 반면, 은행부실 확대와 극심한 경기침체로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의 주가는 2008년 초 대비 50% 이상 하락

유럽 강소국의 주가 변화(2008.1~2009.9)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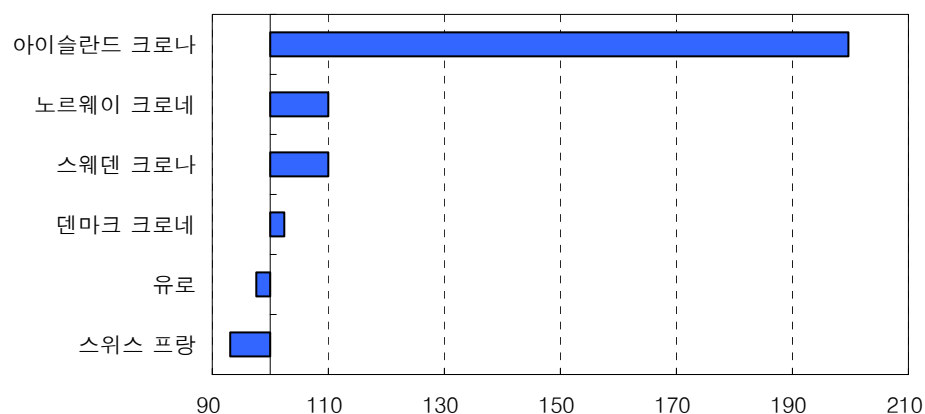
- 시가총액도 2001년 이전 수준으로 감소
-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9개국의 시가총액(GDP 대비)은 2001년보다 모두 감소
-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아이슬란드는 무려 GDP 대비 169.8%p 감소

□ 유럽 강소국의 환율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대체로 안정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는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기록하였지만, 아이슬란드의 크로나화는 무려 200%나 평가절하

- 아이슬란드의 경우 은행 및 금융 위기로 인해 국제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
- 반면, 스위스 프랑과 6개국이 사용하는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시현
- 극심한 경제침체로 고전 중인 아일랜드는 아이슬란드와 달리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어 통화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되는 상황

달러 대비 환율 변화(2008.1~2009.9)



주: 1)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은 유로화를 사용

2) 수치가 높을수록 달러 대비 평가절하를 의미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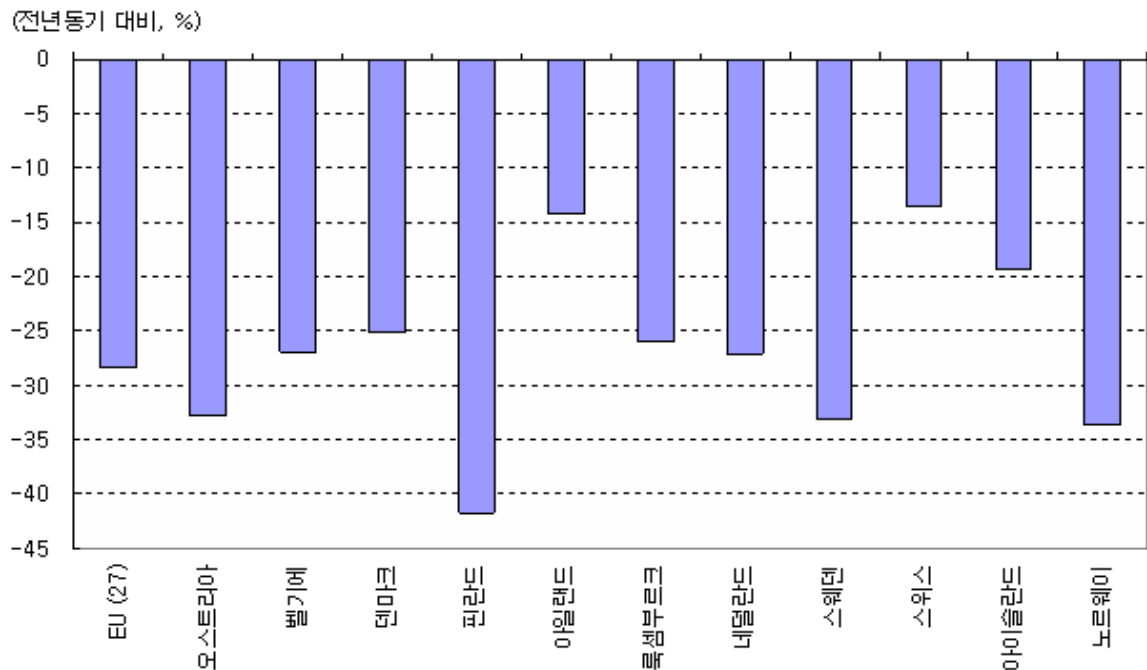
## 실물부문 : 수출 감소와 실업 증가로 성장률이 하락

□ 유럽 강소국의 수출은 해외수요 감소와 무역금융의 위축으로 급감

- 2009년 1~8월 중 유럽 강소국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2% 감소
- 다만, 유럽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32.2%)이나 EU 전체(-28.3%)에 비해서는 수출 감소 폭이 다소 적음
- 스위스(-13.5%), 아일랜드(-14.2%)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적은 반면, 핀란드(-41.7%), 노르웨이(-33.7%), 스웨덴(-33.1%), 오스트리아(-32.7%)의 순으로 수출 감소 폭이 큼

- 핀란드와 스웨덴의 수출 감소는 주력 수출산업이 ICT 경기의 부진에 기인하는 반면, 노르웨이는 유가 하락과 석유수요 감소가 주된 요인
- 오스트리아의 수출 감소는 주력 수출시장인 동유럽의 경기침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유럽 강소국의 수출 증감률 추이(2009년 1~8월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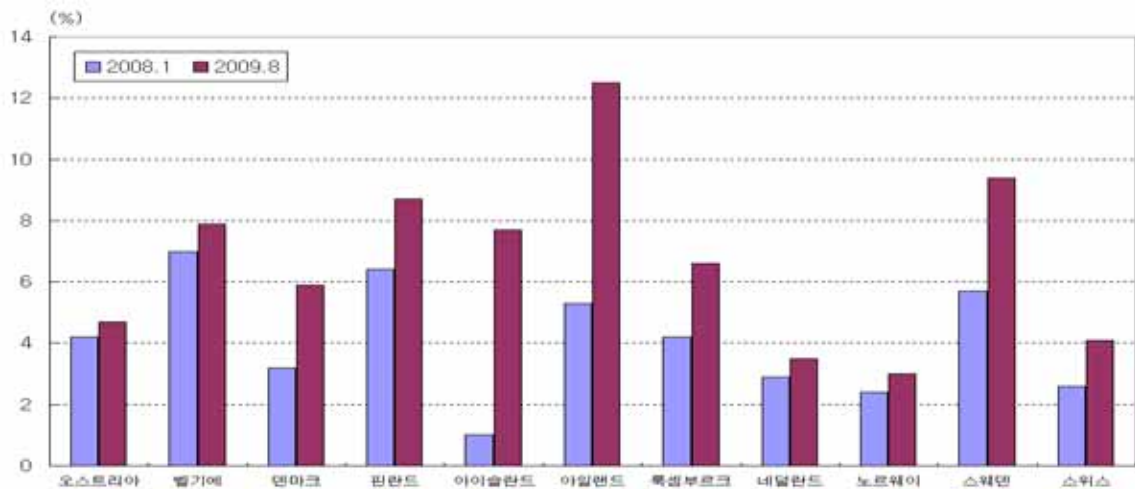


자료: WTO, Short-term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 □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

- 2009년 8월의 실업률이 노르웨이 3%, 네덜란드 3.5%, 스위스 4.1%, 오스트리아 4.7%로 낮은 수준을 유지
- 반면, 심각한 경제위기로 고전하고 있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는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상승
  - 2008년 1월에 1.0%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던 아이슬란드는 2009년 8월 7.7%로 상승하였으며, 5.3%이었던 아일랜드의 실업률도 2009년 8월 12.5%로 급등
  - 아이슬란드는 10.5%, 아일랜드는 15.5%까지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

### 유럽 강소국의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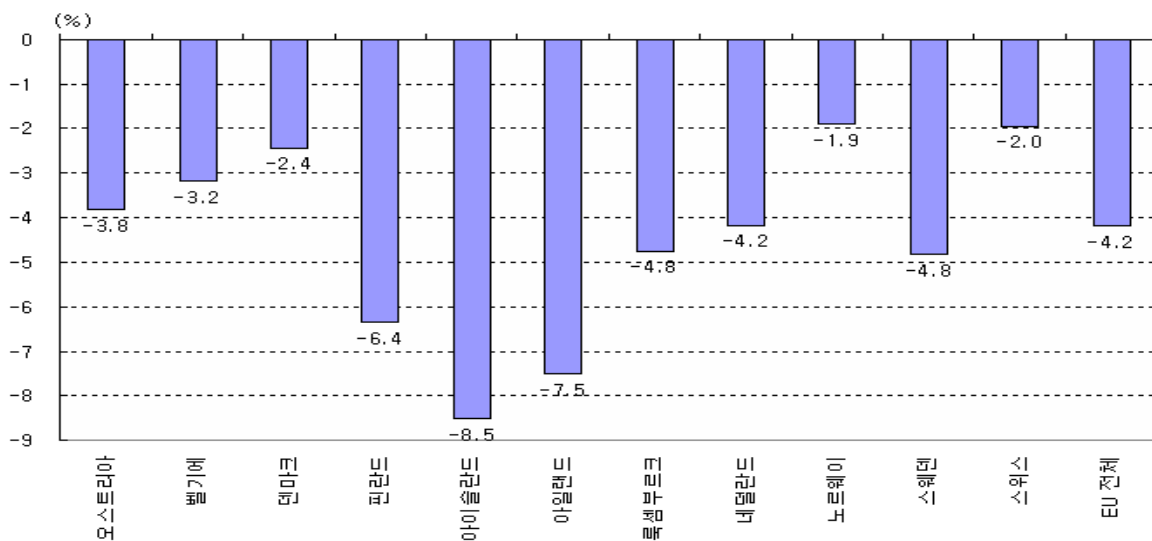


자료: OECD, Labour Statistics.; Central Bank of Iceland ; Swiss Federal Statistical Office

#### □ 2009년 유럽강소국 경제는 전후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아이슬란드(-8.5%), 아일랜드(-7.5%), 핀란드(-6.4%), 룩셈부르크(-4.8%), 스웨덴(-4.8%)은 EU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이 예상
- 반면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2%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

### 2009년 유럽 강소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2009. 10). World Economic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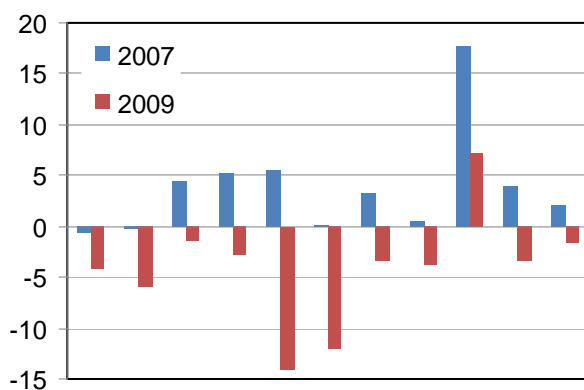
- IMF 전망에 따르면, 2009년 11개 유럽 강소국의 GDP 규모(경상가격 및 달러 기준)는 2008년에 비해 -11.2% 감소 예상
- 아이슬란드(-29.8%), 노르웨이(-18.3%), 스웨덴(-17.0%), 룩셈부르크(-15.4%), 아일랜드(-15.3%)의 순으로 감소 폭이 큼
- 반면, 스위스는 GDP 감소 폭이 -3.2%에 그칠 전망

### 재정부문 : 아이슬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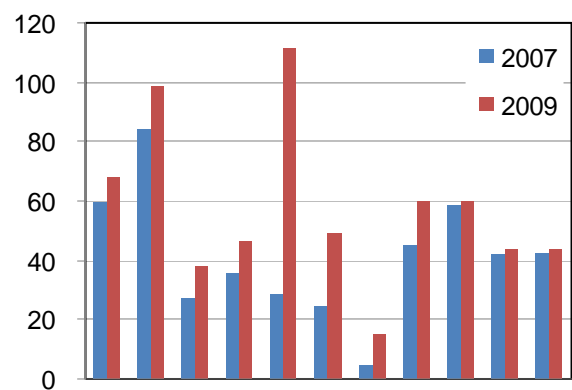
□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재정이 크게 악화

- 노르웨이를 제외한 10개국의 재정수지가 2009년에 적자로 전환
-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를 상회
- 정부부채도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를 제외한 9개 국가에서 GDP 대비 40%를 넘어설 전망
- 특히 아이슬란드의 정부부채(GDP 대비)는 2007년의 28.2%에서 2009년 111.2%로 2년 만에 4배 증가

GDP 대비 재정수지(%)



GDP 대비 정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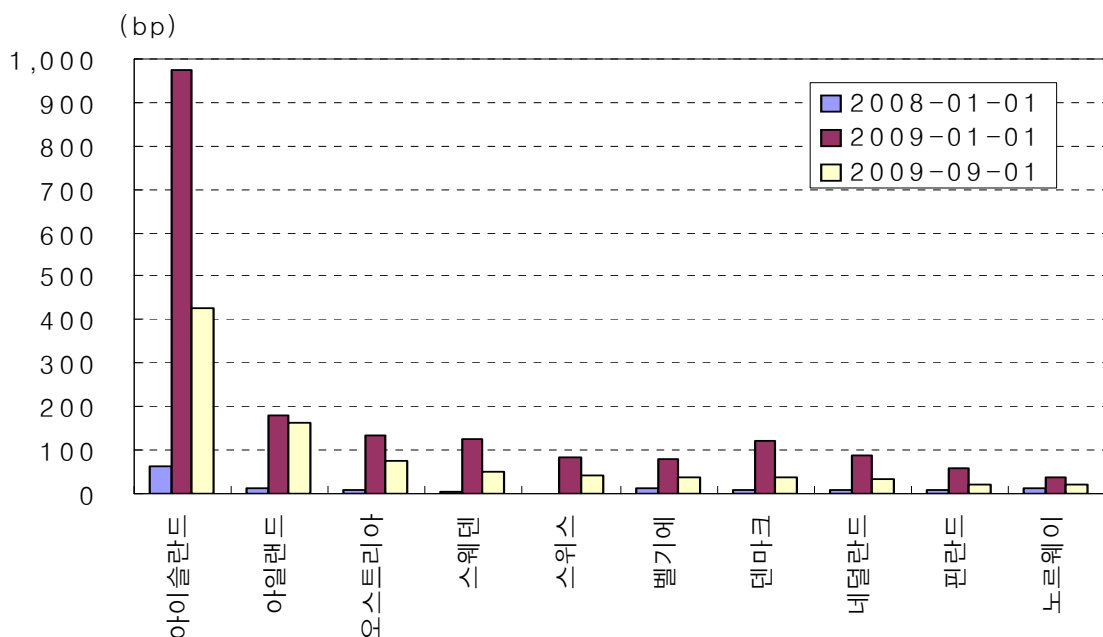


자료: IMF (2009.10.). World Economic Outlook.; EIU, Market Indicators.

□ 국가부도 위험도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짐

-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5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이 한때 100bp를 상회했으나,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대부분 100bp 이하로 하락
- 다만, 2009년 9월 초 현재 아이슬란드의 CDS 프리미엄(426bp)은 여전히 위험한 수준이며, 아일랜드(162bp)도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태

유럽 강소국의 5년물 국채의 CDS 프리미엄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Datastream.

### 3. 시사점

유럽 강소국은 여전히 유효한 성공 모델

□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10개국은 여전히 견재함을 과시

- 33개 선진경제를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 2009년에도 11개국은 유럽 강소국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전망

- 하지만 유로 지역 16개국을 비교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1인당 GDP의 급격한 감소로 아이슬란드가 유럽 강소국에서 탈락
- 금융부문, 실물부문, 정부재정 측면에서 위기대응 성적을 평가해보면,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이 가장 우수
- 한편 IMD도 유럽 강소국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sup>3)</sup>
  - 57개국 중 덴마크(1위), 노르웨이(4위), 스위스(6위), 스웨덴(7위), 핀란드(9위), 네덜란드(11위) 등이 상위에 랭크
  - 반면 독일(24위), 영국(34위), 프랑스(44위) 등 유럽 경제대국의 위기대응 능력은 떨어진 것으로 평가

유럽 강소국의 위기대응 성적표

	금융부문			실물부문			정부재정			IMD 금융위기 대응능력
	은행대출 잔액증감	주가 변화	환율 변화	수출 감소	실업률	경제 성장률	재정 수지	정부 부채	국채 CDS	
오스트리아	△	△	○	X	○	△	△	X	△	14
벨기에	X	△	○	△	△	○	△	X	△	35
덴마크	○	○	○	△	△	○	○	○	○	1
핀란드	○	△	○	X	X	X	○	△	○	9
아이슬란드	X	X	X	○	△	X	X	X	X	-
아일랜드	○	X	○	○	X	X	X	△	X	25
룩셈부르크	○	X	○	△	△	△	△	○	△	17
네덜란드	△	△	○	△	○	△	△	△	○	11
노르웨이	△	△	△	X	○	○	○	△	○	4
스웨덴	△	○	△	X	X	△	△	○	△	7
스위스	X	○	△	○	○	○	○	○	△	6

주: ○ 우수, △ 보통, X 저조

자료: IMD (2009. 5.) Ranking of the 4 factors used for the Stress Test.; 삼성경제연구소 자체 평가 자료에 의거해 작성

<sup>3)</sup> IMD는 경제전망, 정부/기업/사회의 위기대응능력 등 4개 항목을 종합하여 금융위기 대응능력(국가 경쟁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을 평가



- 따라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럽 강소국은 여전히 유효한 성공 모델임을 입증
- 위기대응에 모범적인 유럽 강소국이 추진할 위기 이후의 성장전략(post-crisis strategy)도 벤치마킹 할 필요

#### □ 유럽 강소국이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 ① 과거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신중한 경제정책의 중요성을 인식
  - 북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를 경험
- ②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체질과 안정된 정치·사회 시스템 구비
- ③ 지역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위기대응능력을 제고

#### 경제 복원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이 중요

##### □ 외부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경제 복원력(resilience) 확보에 주력

- 외부충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유연하고 강한 경제체질을 확보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 등
- 금융시장 개방 기조는 유지하되, 금융불안 요인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

##### □ 이와 아울러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강화

-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주체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순조롭게 이양되는 것이 중요
  - 정부 재정 악화로 인해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이 점차 소진

-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
  - 독일, 프랑스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을 추진 중
- 또한 금융위기로 훼손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
  - 녹색성장전략을 위한 투자 확대,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및 중개기능 복원,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한 고용률 제고 노력 등

□ G20 체제의 국제공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위기대응체제를 구축

- 대외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은 유럽 강소국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노출
  - 이에 따라 한국과 유럽 강소국 모두 외부 충격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냐가 중요한 과제
- 대부분의 유럽 강소국은 EU라는 거대 경제권에 속해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리
  - 유럽 강소국은 국가 주권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지속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호막으로서 EU를 활용<sup>4)</sup>
  - 현재 경제위기로 고전 중인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EU 통합에의 참여 여부로, 아일랜드는 EU 및 경제통화동맹(EMU)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 따라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앞당기기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 과정에서 아시아 차원의 위기대응체제를 구축
  - 앞으로 예상되는 한중일 FTA 논의에서 금융위기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
- 또한 G20 의장국으로서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을 위한 위기대응 지원 체제를 주도적으로 추진

<以上>

<sup>4)</sup> 아이슬란드도 금융위기 이후 EU 조기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음

: 가

	10.12	10.13	10.14	10.15	10.16
회사채(AA-)	5.53	5.51	5.51	5.55	5.67
회사채(BBB-)	11.73	11.71	11.71	11.75	11.87
국고채(3년물)	4.39	4.37	4.37	4.43	4.56
콜금리	2.00	2.02	1.98	1.98	1.99

자료 : 금융투자협회. ;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유로화 대비 약세, 엔화 대비 강세**

	10.12	10.13	10.14	10.15	10.16
원/달러	1170.0	1168.8	1164.8	1155.1	1164.5
엔/달러	89.85	89.72	89.43	90.56	90.89
달러/유로	1.4774	1.4859	1.4926	1.4945	1.4906
원/100엔	1302.24	1302.72	1302.47	1275.51	1281.22

자료 : 한국은행. ECOS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美 증시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로 소폭 상승**

구 분		10.12	10.13	10.14	10.15	10.16
거래소	KOSPI(p)	1639.81	1628.93	1649.09	1658.99	1640.36
	거래량(만주)	41,257	41,826	41,016	37,268	37,021
	시가총액(조원)	856	851	861	867	857
	외국인순매수(억원)	-520	90	3,563	5,491	4,086
코스닥지수(p)		510.21	508.37	512.04	510.46	508.26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

**(10. 19 ~ 10. 23)**

---

## 10. 19. ( )

- : , 2009 9 ( )  
, 2009 8 3 ( )

## 10. 20. ( )

- : 2009 9 ( )  
2009 3/4 ( )
- : , 2009 9 ( )

## 10. 21. ( )

- : 2009 8 가 ( )  
( )

## 10. 22. ( )

- : 2009 9 가 ( )  
2008 . ( )
- : , 2009 9 ( )  
, 2009 8 ( )

## 10. 23. ( )

- : , 2009 9 ( )

---

**(10. 12 ~ 10. 16)**


---

10. 12. ( ) • : 8	12	307	,
10. 13. ( ) • : 8	1.3%	3,812	,
10. 14. ( ) • : 9	1.5%		,
10. 15. ( ) • : 8	1.5%	1 3,110	,
10. 16. ( ) • : 9	가	0.2%	,

10. 12. ( ) • : 8	1.8%	가,	
10. 13. ( ) • : 10	1.7p	56,	ZEW
10. 14. ( ) • : 8	0.9%	가,	Eurostat
10. 15. ( ) • : 9	가	0.3%	, Eurostat
10. 16. ( ) • : 8	73	40	, Eurostat

10. 12. ( )	
• : 4-9	70% 가
8 5,000 ,	
10. 13. ( )	
• : 9	1.7% 가 401 9,935 , BOJ
10. 14. ( )	
• :	0.1% , BOJ
10. 15. ( )	
• : 2010 90	,
10. 16. ( )	
• : 2/4	8.6% 가, BOJ

10. 12. ( )	
• 가 : 3/4	14.9% , MAS
10. 13. ( )	
• : 600	3~20% 가 , VAMA
10. 14. ( )	
• 가 : 8	5.2% ,
10. 15. ( )	
• : 8	21% 350 ,
10. 16. ( )	
• : 8	10.4% 가,

##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4	4.6	43.3	6.1	3.6	3.7	9.5	4.6	6.1	4.7	0.06	0.04	895.9
2005	4.0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2	43.8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8. 9			11.3	5.1	3.0	-6.2	14.5	12.2	7.46	0.02	0.01	1,448.0
10			10.7	4.8	3.0		14.2	11.9	7.95	0.03	0.02	1,113.1
11			7.8	4.5	3.1		14.0	11.4	8.56	0.03	0.02	1,076.1
12			5.6	4.1	3.3		13.1	10.4	8.35	0.04	0.03	1,124.5
2009. 1	-4.2	41.5	4.7	3.7	3.6	-2.5	12.0	9.2	7.34	0.04	0.03	1,162.1
2			4.4	4.1	3.9		11.4	8.8	7.07	0.04	0.03	1,063.0
3			3.5	3.9	4.0		11.1	8.4	6.14	0.05	0.02	1,206.3
4			1.5	3.6	3.8		10.6	7.7	5.68	0.03	0.02	1,369.4
5	-2.2	48.9	-1.3	2.7	3.8	-2.0	9.9	7.3	5.16	0.04	0.03	1,395.9
6			-3.1	2.0	3.9		9.6	7.0	5.21	0.02	0.01	1,390.1
7			-3.8	1.6	3.7		9.7	7.7	5.46	0.02	0.01	1,557.3
8			..	52.6	-3.0		2.2	3.7	..	10.0	8.0	5.74
9			-2.6	2.2	3.4		..	..	5.58	..	..	1,673.1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 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4	95.8	100.3	1.1	-4.8	5.3	6.3	-3.9	80.1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0	7.9	-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2	99.9	4.0	3.4	7.9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1.9	100.6	5.1	0.8	8.5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3.1	99.3	1.0	0.5	2.2	-12.8	-9.0	77.2	3.0	5.1	-3.4	24.8
2008. 8	113.5	100.1	2.2	8.4	2.3	-9.0	-8.1	78.4	1.9	2.4	-8.5	26.5
9	113.4	99.8	-1.9	-5.0	-7.1	-45.0	-39.8	77.3	6.2	-1.5	-4.3	37.0
10	112.7	99.2	-3.4	-2.0	-0.8	-46.4	-23.7	77.3	-2.3	-17.1	-0.7	36.1
11	111.3	97.3	-4.7	-0.4	3.3	-52.6	-39.3	68.4	-14.5	-34.3	-17.2	29.7
12	110.4	94.6	-4.5	-11.9	-5.5	-42.8	30.7	62.3	-20.0	-47.8	-29.0	36.7
2009. 1	110.7	92.4	-3.3	8.7	10.1	-47.4	-15.0	61.4	-27.0	-39.7	-50.0	12.8
2	111.9	92.0	-6.1	-5.2	-19.2	-26.2	-20.7	66.9	-10.4	-24.3	-19.2	33.8
3	113.0	92.5	-5.2	0.4	-5.2	-23.7	-14.7	69.2	-11.1	-21.4	-26.5	36.1
4	115.0	93.5	-3.9	0.9	-4.2	-24.9	-8.0	71.5	-8.8	-12.6	-24.4	17.3
5	117.4	93.8	1.6	4.6	0.2	-21.3	-18.5	72.9	-9.6	-13.4	-22.5	15.8
6	120.5	95.4	7.5	2.7	-4.8	2.1	17.9	76.6	-1.4	1.8	-11.7	21.6
7	122.2	96.2	1.8	3.3	-5.3	7.3	2.9	78.8	1.0	13.2	20.8	17.2
8	123.3	96.7	2.0	7.1	-0.4	-16.8	-29.5	77.6	1.2	20.9	-2.6	11.3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교역지수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4	253,845	31.0	224,463	25.5	42,849	25.2	129,525	30.4	49,763	41.7	37,830	52.0	-4.1
2005	284,419	12.0	261,238	16.4	41,343	-3.5	146,914	13.4	61,915	24.4	43,659	15.4	-7.4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9,240	11.0	-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	-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8. 9	37,428	27.6	39,528	45.4	3,834	19.3	18,514	18.1	8,090	15.0	5,203	26.9	-14.9
10	37,111	7.8	36,099	10.3	4,435	5.0	18,018	2.6	7,468	-3.5	5,325	5.1	-17.7
11	28,842	-19.5	28,854	-15.0	3,498	-14.3	13,390	-26.5	5,296	-33.3	4,217	-20.9	-13.7
12	27,118	-17.9	26,576	-21.6	3,491	-9.4	12,418	-26.5	4,715	-35.4	3,269	-34.3	-7.9
2009. 1	21,131	-34.5	24,920	-31.4	2,627	-28.1	10,443	-36.7	4,464	-38.6	3,058	-42.2	4.3
2	25,397	-18.5	22,575	-30.8	2,741	-18.4	12,755	-20.2	5,560	-13.6	3,165	-26.3	7.6
3	27,884	-22.5	23,890	-35.6	2,933	-28.2	14,046	-24.5	6,474	-22.4	3,956	-28.0	4.7
4	30,325	-19.9	24,789	-35.2	3,270	-22.8	14,942	-24.5	6,983	-19.2	4,333	-19.1	8.4
5	27,955	-29.0	23,327	-39.7	2,941	-24.0	14,790	-26.0	6,635	-25.6	3,835	-29.5	13.7
6	32,558	-12.6	25,584	-32.4	3,272	-22.4	16,123	-19.1	7,311	-16.1	4,295	-2.2	14.2
7	31,983	-21.9	27,643	-35.6	3,285	-20.8	17,270	-20.9	7,801	-13.0	3,606	-31.0	9.2
8	28,962	-20.9	27,389	-32.2	3,144	-11.4	16,241	-14.9	7,659	-10.3	3,494	-28.4	14.9
9	34,507	-7.8	29,795	-24.6	3,389	-11.6	18,602	0.5	8,372	3.5	3,939	-24.3	..

##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6,599	199,066	1,043.8	1,012.07	1,723	1,167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6,406	5,994	-16,734	5,107	-50,933	-10,595	-15,368	201,223	1,257.5	1,393.89	3,811	-326
2008. 9	-1,350	-890	-1,236	792	-4,388	-327	-2,970	239,672	1,187.7	1,144.22	3,811	-326
10	4,753	2,626	-55	1,411	-24,835	-199	5,173	212,253	1,291.4	1,306.03		
11	1,907	845	-130	720	-12,141	-214	-3,140	200,506	1,482.7	1,553.79		
12	861	1,496	-1,517	576	-4,829	-195	-1,012	201,223	1,257.5	1,393.89		
2009. 1	-1,636	-1,737	-709	564	5,139	-55	5,679	201,741	1,368.5	1,520.98	3,691	-241
2	3,564	3,107	-529	485	-2,977	-546	161	201,535	1,516.4	1,541.14		
3	6,649	6,979	-646	-216	-2,711	-594	-2,308	206,340	1,377.1	1,414.80		
4	4,247	6,132	-1,109	-856	2,161	80	7,133	212,478	1,348.0	1,382.92		
5	3,496	4,882	-1,467	358	7,023	-260	4,264	226,766	1,272.9	1,314.10	3,801	-756
6	5,431	6,612	-1,445	678	-291	219	5,344	231,735	1,284.7	1,336.28		
7	4,357	6,126	-1,894	482	2,385	-1,139	7,940	237,510	1,240.5	1,299.16		
8	2,044	3,463	-1,791	587	5,061	-111	3,964	245,459	1,244.9	1,332.80		
9	..	..	..	..	..	..	..	254,247	1,188.7	1,318.80	..	..

## 《 주요국 통계 》

## [미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4	3.6	2.5	2.7	5.5	8,075	14,771	-6,250	2.25	10,783.0
2005	2.9	3.3	3.4	5.1	8,946	16,818	-7,290	4.25	10,717.5
2006	2.8	2.2	3.2	4.6	10,231	18,614	-7,881	5.25	12,463.2
2007	2.0	1.7	2.9	4.6	11,485	19,679	-7,312	4.25	13,264.8
2008	1.1	-1.7	3.8	5.8	12,914	21,122	-6,733	0.25	8,776.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sup>1)</sup>	소비자물가 <sup>2)</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3)</sup>	주가(기말) <sup>4)</sup>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4	2.7	5.6	0.0	4.7	6,117	4,922	1,019	0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195	0	16,111
2006	2.4	4.6	0.3	4.1	7,525	6,734	8,71	0.25	17,226
2007	2.1	2.9	0.0	3.9	8,393	7,314	7,90	0.50	15,308
2008	-0.6	-3.2	1.4	4.0	8,105	7,889	1,080	0.10	8,860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overnight call, 4) Nikkei 225

## [유로지역]

	성장률	산업 생산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1	2.3	2.1	9.0	11,197	10,553	580	2.00	2,951.2
2005	1.7	4.1	2.2	9.0	12,091	12,041	138	2.25	3,578.9
2006	2.9	5.1	2.2	8.3	13,521	13,715	0	3.50	4,119.9
2007	2.6	2.8	2.1	7.5	15,059	14,900	306	4.00	4,399.7
2008	0.8	1.7	3.3	7.6	15,617	15,929	-686	2.5	2,447.6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1.2	4.2	1.7	10.6	7,261	5,714	1,029	1.98	4,256.1
2005	0.8	3.0	1.6	11.7	7,835	6,259	1,147	2.32	5,408.3
2006	3.0	5.3	1.6	10.8	8,941	7,322	1,509	3.48	6,596.9
2007	2.5	5.8	2.3	9.0	9,707	7,717	1,913	3.66	8,067.3
2008	1.3	0.6	2.6	7.8	9,902	8,135	1,649	0.86	4,810.2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4	2.8	0.9	1.3	4.8	1,909	2,518	-252	4.75	4,814.3
2005	2.1	-1.5	2.0	4.8	2,116	2,801	-327	4.50	5,618.8
2006	2.8	0.6	2.3	5.4	2,436	3,199	-450	5.00	6,220.8
2007	3.0	0.5	2.3	5.4	2,208	3,106	-403	5.50	6,456.9
2008	0.7	-2.8	3.6	5.6	2,510	3,439	-245	2.00	4,392.7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5	2.1	2.1	9.3	3,385	3,441	95	2.04	3,821.2
2005	1.9	0.2	1.7	9.3	3,554	3,790	-111	2.36	4,715.2
2006	2.4	1.0	1.7	9.2	3,884	4,177	-99	3.43	5,541.8
2007	2.1	1.5	1.5	8.4	4,031	4,431	-198	3.76	5,614.1
2008	0.7	-2.3	2.8	7.8	4,120	4,654	-391	1.66	3,218.0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320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019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1,775	6.12	2,675.47
2007	13.0	18.5	4.8	4.0	12,180	9,558	2,627	7.47	5,261.56
2008	9.0	12.9	5.9	4.2	14,285	11,331	2,955	5.31	182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sup>1)</sup>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sup>2)</sup>	주가(기말) <sup>3)</sup>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6.2	9.3	1.6	4.4	1,824	1,688	136	1.75	6,139.69
2005	4.2	3.8	2.3	4.1	1,984	1,826	158	2.25	6,548.34
2006	4.8	4.7	0.6	3.9	2,240	2,027	213	2.75	7,823.70
2007	5.7	7.8	1.8	3.9	2,467	2,193	274	3.38	8,506.28
2008	0.1	-2.0	3.5	4.1	2,557	2,408	148	2.00	4591.2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